

秋史의 濟州 流配 諺簡 研究

— 그 年紀의 再構와 內容分析을 중심으로 —

梁 淳 秘

I

秋史 金正喜가 憲宗 6年(1840) 9월에 安東金門에 의한 조작적 정치극인 尹尙度 獄事再論에 연좌되어 大靜縣에 圍籬安置¹⁾를 당하게 된다.

孤獨과 斷絶만이 연속되는 絶海孤島인 濟州島에 入島하여 濟州 禾北嶺에 첫발을 들여 놓고, 9년간이나 ‘荒寒寂寞之濱’²⁾에서의 流配生活을 지내게 된다.

流配生活 중인 壬寅年(1842)에 秋史는 不運하게도 喪配를 당하여 실로 비통에 젖어 ‘恤寡存孤獨’에 젖어 腸斷의 恨과 怨을 가슴에 파묻는다.

그의 流配生活은 자신에게 生涯의 不幸이었지만 그러한 流配의 狀況을 文學을 통해 표백하고 카타르시스화하여 國文學史上 珠玉같은 귀중한 流配文學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큰 意義가 있다 하겠다.

本攷는 秋史가 1840년에 大靜縣에 流配되어 1842년에 夫人 禮安李氏가 他界하기까지 秋史가 夫人에게 流配地에서 보낸 諺簡을 考察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秋史의 親筆諺簡은 21통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 秋史가 流配地 大靜縣에서 夫人 禮安李氏에게 書狀한 것으로 9통이다. 이것이 第1次 발표분 5통과 제2次 발표분 4통 등을 도합하여 9통이 되는 것인데,³⁾ 이것이 아직도 그 年紀를 바로 잡아 있지 못한 실정인 것이다.

本攷는 이 점에 留意하여 秋史가 夫人에게 書狀한 年紀의 차례를 確實히 바로 잡고, 거기에 나타난 諺簡의 內容을 分析考察하기로 한다.

1) 「憲宗實錄」卷7, 6年 庚子 9月 辛卯條, “鞫囚罪人正喜大靜縣圍籬安置”

2) 「阮堂先生全集」卷4, 書讀與沈桐庵(11)

3) 「文學思想」(76), 1979.1월, pp.322-340, 1次 發表를 A로, 同書(115), 1982.5월, pp.362-382, 2次 發表를 B로 설정하였다.

II

서간이란 일상적으로 상호간에 音信을 통하는 것이다 東洋에서는 이런 상호간의 音信을 통하는 私文書에는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다. 書狀, 書札, 書翰, 尺牘, 尺素, 手簡, 消息, 玉章, 玉梓, 書契, 雁書, 雁札,⁴⁾ 書簡, 書牘, 書字, 札翰, 片楮, 手札, 信書, 竿牘⁵⁾ 등이 그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書簡의 개념은 갑오경장 이전에 쓰여진 國文專用 및 漢字混用의 書簡一切를 지칭하는 것이며, 狹義的으로는 個人 및 集團間의 書簡이고, 廣義的으로는 公的 性格을 띤 傳教, 懿旨, 呈狀, 所志, 白活 등 古文書의 일부 영역에서 속하는 것과 遺書 祭文까지 包括되는 것이라 規定한다.⁶⁾

요컨대 文學이란 作者와 독자를 전제로하는 것이니 비록 독자가 특정된 것이 아니라도 문학의 내용이 작자의 호소인 만큼 독자라는 대상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문학은 서간문의 성격을 더욱 농후하게 띠는 것이며 따라서 문학 문장의 원형(archetype)은 서간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간이 文學의 淵源 및 胎盤이며, 문학의 생성발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⁷⁾

서간이란, 직접 대화형식으로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쓰인다.⁸⁾ 곧 작기가 어떤 특정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직접 면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다.

개인의 서간은 때로는, 한때 說教가 그러했던 것처럼 藝術의 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선 장르의 混濁에 반대하는 현대의 경향에 응하여 美的 機能의 狹少化, 藝術의 純粹性에 관한 특별한 강조, 19C 후기의 미학으로 해서 표명된 汎美主義(pan-aestheticism)와 그 주장에 반대한 반동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美的 機能의 優位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만을 문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지만 동시에 文体, 構成과 같은 따위의 美的 要素가 科學論文, 哲學論文, 政治판플렛, 설교와 같은 따위와 전혀 이와는 별종의 非美的 목적을 가진

4) 平凡社刊, 「世界大百科事典(20)」, 平凡社, 1963, p.118.

5) 李御寧 編著, 「世界文章大百科事典(4)」, 삼중당, 1971, p.220.

6) 金一眞, 「詩體의 綜合的 研究」(省谷論叢, 5집), 1974, p.9.

7) 前掲, 「詩體의 綜合的 研究」, pp.12-13.

8) 白鐵外二人共著, 「文章教室」, 日新社, 1961, p.241.

作品들 중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⁹⁾

그러한 점에서 추사의 유배언간은 넓은 의미에서 문학성이 강렬한 것이라 하겠다.

II

例1) 「어내듯 겨울 되오니 년하야 편안이들 지내오시압. 경향에서 다 일양무고하압. 천안쳐 모양을 보오니 그렇치 아니할 것 아니오나. 게셔가 그리하야 큰병이 나시면 달이 되개삼.

죽금으로 오니 이 만사 다 집사람이 평안들 하고, 게셔도 더욱 몸을 도라보와 견보다 더 보전하야 이천리 대해 밧게 잇난 마음을 위로할거시니. 매양 복건의 일반 생각마오시고 널리 생각하고 크게 마감을 먹어 아모쥬록 편안이 지내게 하압.

집안일이 죽금은 더 고대여서 다 달여시니 웅당 그런 도리는 〽알으시려니와 동동한 마음은 별노 간절하와 이리 말삼을 구구히 하압.

강동의 모양도 말이 되지 아니 하야사오니 이 동안 도라간 후에나 엇더한지 심간이 어이난 듯하압. 먹음새나 착실히 하야 쇼성이 되게 하기 경경하압.

나난 천리를 무사이 오와 또 천리대해를 거월이 십칠일에 하로 내에 쉬이 건너오니 무척강령이 오나 선동사람 다 슈질하야 정신을 일터 중일들 굴머 당풍하야 안져 의전에 밥도 잘 먹고 그전에 년하야 물마리를 먹고 오더니 전상에서 되인 밥을 평시와 갖치 먹사오니 그도 아니 고이하압.

대저 나 혼자 관저치 아니하다 말삼하올거시 아니오라, 아모려도 그 대해난 사람샤람마다. 건너 오리라 하고, 권하야 울걸이 업삼난대 오니, 항혀 늬이 갓단 아해들이 아모 철도 모라고 당상을때 울걸이 업사오니 미리 그리 아라차르게 하압.

초일일 대정 배소에 오오니, 집은 넉넉히 용신하올 만한대를 어더 한 간방에 마로 잇고 집이 정하야 별노도배할 것 업시 드러사오니 오히려 과하은 듯 하압.

먹음새도 아직은 가지고 은 반찬이 잇사오니 엇지 견대여 가을 거시오. 생복이 쇼산이오니 글노 또 견대듯 하압.

쇠고기난 결귀하오나 혹 가다가 어더 먹을 도리가 잇삼난가 보압.

아직은 두서을 경치 못하오니 엇더한 줄 모라개삼.¹⁰⁾

第2次에 발표된 第18信인데 第1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大靜縣 流配중 夫人에게 쓴 上狀으로서 사실상 第1信으로 斷定할 수 있다. 이 諺簡은 年紀가 미상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秋史가 尹尙度の 獄事再論으로 대정현에 유배당하게된 것은 憲宗 6년(1840) 9월2일이었는데, 이날, 王都를 떠나 海南으로 가서 동년 9월27日¹¹⁾ 舟行으로 출발하여 당일 하루만에 제주

9) R·Welleck & A·Warren, 「文學의 理論」, 白藏·金秉喆 共譯, 新丘文化社, 1965, p.29.

10) 註3) B (8-1). pp.371-372.

11) 이 秋史의 諺簡 제1신과 같은 年紀에 秋史는 流配地 濟州島에 入島케 된 情況과 大靜縣에 謫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內容의 流配簡札을 仲弟 命喜와 斷金之交인 權敦仁에게도 發信하고 있다. (『阮堂先生全集』卷二, 與會仲 命喜 第1信, 『阮堂先生全集』卷二 與權敦仁 第4信 參照).

禾北綱 別刀浦에 입도하여 10월1日 대정현 배소에 도착하였다는 사실에 의거한다면 이 諺簡의 年紀는 비록 기록이 없아도 대정현에 도착한 10월 1日에서 5日 사이에 쓴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家書抵萬金〉이란 말이 있듯이 秋史는 유배생활을 소상하게 夫人에게 雁書를 썼고 家書가 올 것을 기대했다. 여행 중에 집안 사람으로부터 서신을 받으면 그 기쁨이 만금을 얻는다고 한다면 가정을 떠난 유배지에서 집안 사람에게 서신을 받는 기쁨이란 형용키 어려울 것이다.

이 諺簡의 用談은 첫째, 부인 예안 이씨의 병환을 걱정하였다. 2千里 大海 밖에 있는 사람의 음마울 위로하는 뜻에서도 크게 마음을 먹어 아모조록 편히 지내 줄 것을 비는 秋史의 부인에 대한 至情이 절절하다.

둘째는 대정현으로 유배되어 온 경로를 얘기했다. 그 유배경로가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다. 항해가 風候不順하여 풍랑이 험악하기 때문에 수일이 걸리는데도 당하루에 무사히 제주 화북진에 당도하여 도민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¹²⁾ 평상인의 제주도 왕래도 至難한 일거늘 유배자들의 제주도 舟行 입도는 생사간의 문제였을 것이다.

세째는 庶子 商佑에게 제주에 올 妄想을 삼가도록 당부하였다.

네째는 謫所에서의 생활을 얘기했다. “초일일 대정 배소에 오오니”란 대목에서 배소가 불명 나 추사는 宋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倉川村으로 옮겼다.¹³⁾

전북이 나오고 쇠고기가 절귀하다는 점에서 謫所가 山間이 아니라 海村 부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例2) 「양재완 편지란 이 편과 저위가치 드러가울 뜻하오며, 갑외오난대 글월 보오니 이달 초생난 안신이오니 여기은 후 이럿헌 근신은 처음으로 보압고, 그 편에 여러 달만에 두 곳에서 기다리운던 것과 현슈이 다르오니 신기 이상하은 듯 하오이다.

편후 또 근 이십일이나 되오니 대도 일양들 지내오시압고 거셔도 년하야 관서치 아니 하시압. 나왔도다하여 겨오시나 나오실 니가 잇삽. 진정 나오시면 원외에서 마암이 위로되오랑마난 그러할 니가 없사울 듯 하오이다.

강동의 요통은 엇더하압. 일기에 따로 허 나가 가압난가 녀녀 동동하오며, 녀유난 그 사이와셔 지내다 하오니 모히어 ○○하오시랴. 멀리서 경결하울 뿐이압.

12) 당시의 정경을 전해주는 秋史의 門人 閔奎鎬(1836-1878)의 표현을 빌면 더욱 정확할 것이다. (『阮堂金公小傳』)

13) 秋史는 憲宗 6년 9월2日 大靜縣으로 流配되어 同14년까지 流配生活을 하는데 憲宗6年 9月27日 禾北綱에 入島하여 10月1日에 大靜의 宋啓淳의 집에서 謫居, 훗날 姜道淳의 집으로 移謫하여 倉川村으로 옮겼다. 秋史와 서울 本家와의 연락은 忠淸道 江景에 장사다니는 梁鳳信이라는 船主가 자진하여 맡아 주었다 한다.

경향에서 년하야 일양들 하오시다 하압. 평평히 경경라오며 나난 거번 기별 때와 갓삽. 벌탈 업시 잇사오니 녀녀들 과히 마압.

이번에 보내신 저고리와 장육 전포슈대를 자시 밧자와삽.

장육이 상처도 아니하고 오래 두어도 관겨치 아니하게하오니 후계도 그 처론 아조 말뉘여 보내오면 관겨치 아니하올가 보압.

갑최난 와사오니 무죄분적하압기난 다란 하인보다 낫자을 듯 하오니 대행이오나 엇지 그리 갓개 하야 지내개삽. 나난 되어 가난대로 지내자 정하야사오니 엇지 몬지내개삽. 한의난 아직 울러 보내오니 여럿두요잔대로 할분 아니라 머기고 입히기들 아니 어렵삽.

머느리난 무사이 부지하압. 방은하야 드러삽. 거번 편지에 대강하야삽기 대강 이만 덕삽.

신축 윤월 이십일 상장¹⁴⁾

第2次 발표된 第19信인데 第1次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秋史가 대정현에 유배중 부인에게 쓴 上狀으로서 第2信이 된다. 대정현에 유배당한 이듬 해 윤3월의 諺簡이다. 그 용담의 첫째는 집안에 대한 문안이다. 곧 부인의 건강을 묻고 舍仲弟 命喜의 병세와 舍季弟 相喜 등을 비롯하여 경향에 있는 일가들을 생각하면 슬픔이 북받쳐 말이 아니 나온다고 하며 자탄한다.

둘째, 집에서 보내준 저고리, 장육, 전포, 수대 등을 받았다는 얘기다. 장육이 傷치도 아니하고 오래 두어도 관겨치 않으니 앞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부쳐 달라는 당부다. 반찬까지 본가에서 마련하여 부쳐준 성의를 쉬 짐작할 수가 있다.

例3) 「세후 처음으로 양재산 편에 글을 보압고 그후 또 인편에 년하와 글월 보오니 인편 업삽때 난 업삽다가 이시면 또 접보보오니 든든하압. 갓가온대 갓사와 일시 위로되오며 그 사이 또 달이 너머사오니 년하와 편안이를 지내오시압. 계서난 이사가 엇더하압. 관겨치 아니타 하오나 관겨치 아니하올 이가 잇삽.

아마 먼대 샴이라라고 숨기난 듯 하오며 속미음은 연하야 자시압. 계서가 몸을 보호하야 가난 거시 날 보호하야 주난 것시오니 그리 아오시압. 창녕의 요통이 종시 낫지 못하다 하오니 동동하은 녀녀 축냥 업삽. 경향 대되일양이압. 지난 달 회월 제사 지나오시니, 철철철디한 맘구지통 더욱 원통순박 하야 죽지에 죽어 모르고 시보오니, 고금 천하에 이런 샴이 정니 광경이 어대 잇사울깃가. 영뉴 나와서 한가지로 지내와삽.

나난 샴라 잇다 하올 길이 업삽. 여긔 지내난 모양은 일향 별병은 업사오니 완인하게 엇지 다 이르오며, 먹난 것도 그 모양이오니 그리저리 아니 견대여가압. 일것하야 보낸 찬물은 바른 것 외에난 다 상하야 먹을 길이 업삽. 약식 인결미가 맛갑삽. 슈이 와도 성히 오기 어려운데 일곱달만에 오고 쉬둬야 두어달만에 오압난 거시 엇지 성히 올가보압. 서울서 보낸 침채난 원락 염을 과히 한 거시라. 변미난 하야시나 그러도 침채에 쥘린 입이라 견대어 먹어삽. 새오것만 변미하고 조기것과 장복기가 변미 그리 하오니 이상하압. 미어와 산포난 관겨치 아니하압. 어란 갓쁜 거시나 그 즈음서 엇기 험거든 어더 보내압. 산채난 더러 잇나본대 여긔 샴은 순전 먹지 아니하오니 고이한 풍속이 압 교사리 쇼로짱이와 두릅은 엇기 혹 어더 먹삽.

도모지 저채와 장이 업사오니 범저시 매매가 업사오니 이셔도 모르고 어더 먹기가 어렵삽. 의복

14) 註3) B (19-2), pp.373-374.

은 새 초간에 보내신 거산 다 기호 거시니 도로 허 웃삽. 도로 보내울 길도 업삽고 다 아직 두어사오며, 양재원편에 온 의복은 여름사리 가지 와사오니 아직 대여 입사올가 하며 죽금 입난 저고리가 마치 하나울 가지고 입사오니 과히 더럽고 더러 헤어져 입기 어려오나 다른 야로것 밧고야 입기 어렵고 조금 어려오나 아니 견대압. 가을 미쳐나 하나 해야 보내게 하압. 그은 미리 부쳐야 때에 미쳐 입지 그러치 못하면 심동될 넘녀가 잇삽. 께입난 긴팔동거리도 하나해야 보내게 하압 밀이 (이하결장)』¹⁵⁾

第1次에 발표된 第6信인데 第2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秋史가 대정현에 유배중 부인에게 쓴 上狀으로서 第3信이 된다.

末尾 部分이 缺帳이 된 諺簡이다. 그러나 ‘지난달 회일 제사 지나오시니’라는 내용으로 봐서 곧 父 魯敬의 祭祀日, 亡日은 丁酉年(1837) 3月30日이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辛丑年(1841) 또는 壬寅年(1842) 4月 초순경에 쓴 것으로 단정되는데 이는 인편 양재완이 辛丑年에 제주에서 서울에 왕래를 자주 한 것으로 第2信과 第4信에 나타나 例證됨과 辛丑年 4月20日의 諺簡의 출현으로 4月 초순 경에 쓴 것으로 단정된다.

용담의 첫째는 부인 예안이씨의 병환을 걱정하며 生父 魯敬의 祭祀日을 맞이하여 安東金門에 의한 세도 싸움에 희생이된 父子間의 斷絶의 怨恨을 되짚은 얘기다. 곧 生父 魯敬이 丁酉年(1837) 3月 타개하였음에도 庚子年(1840) 7月10日 尹尙度獄事의 再論으로 死後에 追削당하는 徹天徹地한 罔極之痛을 겪었으며, 秋史는 趙寅永의 營救로 滅死되어 死地인 제주 大靜縣에 유배된 것이니 그 얼마나 切愴하였겠는가.

둘째는 유배생활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나난 샤라 잇다 하울 길이 업삽. 여귀 지내난 모양은 일향 별병은 업사오니 완인하기 엇지 다 이르오며 멧난것도 그 모양이오니 그리져리 아니 견대 가압>이라 하였고 <죽금 입난 저고리가 마치 하나울 가지고 입사오니 과히 더럽고 더러 헤어져 입기 어려오나 다른 야로것 밧고야 입기 어렵고>라고 표백하고 있다. 이어 부인이 부쳐준 찬물은 다 상하였음을 알렸고, <서울서 보낸 침채난 원악 염을 과히 한거시라 번미난 하야 시나 그러도 침채에 유린 입이라 견대여 먹어삽>이라는 대목과 <도모지 저채와 장이 업사오니 범거시 대매가 업사오니 이셔도 모로고 어더 먹기 어렵삽>이란 대목에서 대정현의 생활상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곧 당시 대정현에는 <김치>가 없었다는 것과 <시장>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세째는 가을 옷을 부쳐 달라는 당부이다.

例 4 > 「양재완, 박한의편의 편지란 용담 그 사이 보와 계오실 듯하나 매양 인편 왕래가 지속을 정치 못하오니 거시셔도 오작 기다려삽.

거월 순간 서울서 편지 부친 거시 이달 초팔에야 보오니 삼십일 동안이 오니 오히려 근신이라 거

15) 註3) A <6-13>, pp.329-330.

기 편지들은 못보나 대장 일양을 한 조각은 뜻있게 위로되어져 요사이 점점 너름이 되어가오니 대되
들 경안이 지내시압고 강등의 요통 잊리라옵고 죽림 낫자온가 이리 외오서 동동하압.

경향에서도 그 동안 다 부양이를 지내압. 종종 넘어오며 계시난 요사이도 속미음은 자시압.

나난 아직 전과 가지 지내오나 슈월 탐치르 겨북하리니 쇼도 하고 고압 낫압.

명월에 부친 강령이 배가 이란 조산애야 드리차서 보내오신 안찰은 자시 낫차와하오니 자연이 변
미야 엇지 아니하야개압.

그리하되 못격지 아니하게 되오니 행이압.

인절미난 모도 석어바려압. 그난 할질이 입난 거시니 후에난 부질없난 것 슈고 드려 드진 청물을
어이 하눌가 고압. 상으로 판난 거슨 그리 단거지 아니하고 우우승과난 노 편미하야압. 첫우우난 초
음 시여시나 먹개압.

겨울에 비웃 옷을 활러 보내오나 전작 또 고쳐 보내시야 되개압. 여기 난 겨울 기술 여름에 유의
하여야 되개압. 바지난 두명 것 고쳐 보내고 명지 바지난 보내지 타압.

여기 노유 바지 하나 잇난 것엔 고압 죽집기 입지 다니야고 아직 누어압. 우우막이가 해놓지 아니
하오니 상중하야 하압. 사매 잇난 우우막이만 나려온 거시 그대로 다 이시나 다져 하려 보내지타압.
여기서 종종 입난 거시 아니오니 여럿 부질업압.

차동 회갑의 옷은 엇지하야 보내압. 막연이 생각뿐이오니 명니 전디기 어렵압. 회갑날 도반이나
하여 잡잡서 온냥을 또 어더 보내여야 할 거시니 엇지 요탕하압. 다쇼간의 의논날 하야 하개 하압.

인편 종종 대장 덕압.

신축 사월 이십일 상장』¹⁶⁾

第2次에 발표된 第20信인데 第1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보면 秋史가 대정현에 유배중 부인에
게 쓴 상장으로서 제1편이나.

秋史는 유배중이라도 풍가집의 의구감에서 모든 家間凡節을 자상하게 유의하고 있다. 從兄
教喜의 회갑연에 어떻게 인사를 치렀는지를 열거할 정도로 그는 용의주도하였다.

용담의 첫째는 문안과 부인의 병환에 대한 걱정을 얘기했다.

둘째는 정월에 부친 饑物을 받았다는 것과 겨울 옷을 보내니 고쳐 보내달라는 당부의 얘기
다. 饑物中 〈외장파〉, 〈우우상〉, 〈섯우우〉 등이 이에 속하는데 3개월에 걸쳐 받은 것으로 卞
京郷과 濟州間의 왕래가 잦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절미난 모도 석어 바려
압〉이란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전술한 諺簡이 辛丑年 4월 초순경에 쓴 것으로 단정한 바 있는데
그 諺簡 속에서도 「인절미가 맛잡압, 슈이 와도 성히오기 어려온대 일곱달만에 오고 쉬어야
두어달만에 오압난 거시 엇지 성히 할가보압」을 강조한 내용이라 보아 이 辛丑年 4월 이십일
諺簡보다 앞선 것으로 前記와 같은 단정을 확실히 하는 바가 있다.

세째는 從兄 教喜의 회갑연에 어떻게 인사를 치렀는지 걱정한 얘기다.

16) 註3) B (20-4), pp.374-375.

例5) 「니응경 회편 답서난 그 사이 응당 보오신 듯하오며 경손은 압난대 글월 보압고 일양들 하오신 일 든든 것부오며 이내듯 겨울이 또 되오니 그동안 대되 한가지르들 지내오시압고. 게서난 요사이 엇더 하오시압. 매양 잘 잇노라 하오시나 말삼이 밋럽지 아니하오니 녀너만 무궁하오며 강동은 요통 종시 낫지 못하야 성한 날이 덕은가 보오니 갖득한 모양이 오작하야시랴, 이리 동동하압고, 영뉴난 잠간이라도 와서 단념가온가 보오니 든든하야 지내와 게시랴 일컷삽. 니천덕에서 요사이 쾌복해야 지내오시고 회갑이 머지 아니하야 겨오시니 경축하온 등 잇대 아니라도 당신 신체 미령하오신데, 디고나 흐른 일을 당하올사록 심희 더욱 명치 못하오시랴 이리 외오서 일켜잡고, 집안 어른이 혼자 규원이 남아 겨오신대, 명니들을 겨울 길이 없사오니 사사 더욱 한심역색하오니다. 의복지 절은 엇지다 하야 보내오시고 그날도 변이라 하야 잡사올 도리올 거긔서만 말고 너긔서도 서로 의논하야 결연치 아니하게 지내게 하압. 차동서난 밋서 장사가지 지내온 가 보오니 첩첩히 녀일이 되여 천니 밋긔서 통확비된하압기 엇지 형용하야 이르울잇가. 그 민직장 형님 모양 참아 불상하압. 엇지 견대여 가음난고 이치이지 못하오며 서울 여러 맥은 아주 무양들 하고 평동서난 심념 행차하오신가 보오나 아득히 소식올 아올 길 업사오니 경경하압. 떠나리난 산월이 되여실 듯하오니 그 사이 무어슬 나아삽. 첫 해산은 아니나 무사히 순산하압고 탈이나 업산난가 녀이오며 경희덕도 태중이라 하오니 니질 손자란 말우삽고 신기하압. 온양서난 총화의 상사 놀랍고 참혹하압. 인지도 그만하니 맛잡고 그 문중에 어른이라 하리 아조 업서 겨리 죄계하야 가압난일 불상하압. 나난 요사이야 조곰 낫게 지내압고 음식 먹기도 저기 입맛시 부쳐 여상이 먹고 찬도 범절도 여름 보단 낫잡고 혹가다가 고기맛도 보오니 그만하면 또 아니지내야 가을 듯하며 이번에 보내오신 반찬은 다 무사이 와 개위를 쾌히 하오니 다행이오나 오히려 분수에 과분하온 듯하와 마음이 도로혀 궁구하오며 장맛도 이번은 또 흐니 병질이 병노 업삽고 쇼쇼 병질 잇다 하야도 못먹게 갖지 아니하면 먹을 일이지 엇지 구비하게 하야 먹삽. 민어가 종시 말나 먹기 어렵사오니 여긔난 업사올 뿐 아니라 찬도에난 관긴하온대 종시 삭지 아니하야 건경하오니 병든 니(이)의 심을 길 어려워 민망하압. 의복도 다 자시 밋자와 입계삽. 명저 바지 종시 마음에 걸니더니 무명것 입사오니 편하압고 묘초 또 덕삽기 이달해난 그만 그치압.

신축 십월 초일일 상장¹⁷⁾

第1次에 발표된 제7신인데 제2차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추사가 대정현 유배중 부인에게 쓴 上狀으로선 제5신이다.

秋史는 流配生活 중인 流刑囚의 처지이면서도 慶州金門의 宗孫된 입장에서 모든 집안 일을 걱정한 내용이다.

용담의 첫째는 부인의 건강을 비롯해 舍仲弟 命喜, 舍季弟 相喜, 妹氏, 妻族 등 온통 連袂威黨間의 安否를 걱정하는 한편 子婦의 해산을 걱정함과 門中의 가장 高齡者인 從兄 教喜가 回甲을 맞이함에 측근에서 받들지 못함을 恨하면서 回甲宴을 소홀히 말도록 당부하였다.

둘째는 대정현에서의 窳鳥凡節을 얘기하였다. <나난 요사이야 조곰 낫게 지내압고 음식 먹기도 저기 입맛시 부쳐 여상이 먹고 찬도범절도 여름보다 낫잡고 혹가다가 고기맛도 보오니 그만하면 또 아니 지내야 가을 듯하며.....

17) 註3) A <7-5>, pp.330-331.

명지바지 종시 마음에 걸니더니 무명깃 입사오니 편안하옵고)라고 하여 유배생활의 한 단면을 엿보여 주는가 하면 분수에 과분한 유배생활체 삼가 두려워한다. 조선조의 선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천리 밖에서 보내준 반찬과 의복을 받았음을 서술하여 그 부인의 용의주도함에 놀라움을 보여 주었다.

例6) 「강경이 편후 거의 편지란 무론 배회하고 일결보지 못하더니 한라 오갈날에 글월 보았고 든든 반갑사옵기 더욱 말삼으로 하울 길 입사오시며 시후 편지 부치는 것 어대 내 보오신지 심상한 정의와 다르오니 이리 녀이오며 그대 병을 지내오시고 요사이야 저기 쇼성이 되었신가 보오나 여슈가 종시 쾌복치 못하오신가 보오니 게셔도 쇠경이라 한번 병드오시면 본디 적상적패하오신 근역에 오작 하오시랴. 이리 동동 녀며 못내 노홀 길 업삽. 점점 춘화하옵고 인편 후 또 달이 너머사오니 범결 어머하오신압. 부대 게 한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니외에 인난 마음을 생각하오셔 심분 신설해야 가오시기 바라오며 강동도 그리 장정치 못하오니 등동한 녀며 노히이지 아니하얏. 아해난 두고 불사록 샴되오며 가장 괴롭하온가 보오니 일문에 다행하얏고 게셔가 반내에 효양을 바드랴 그리 하온가 이리 축슈하오며 부자간 잇때까지 못보오니 인경에 경 어렵사오나 오히려 둘째의 일이오며 제가 와서 보랴 한다 하오니 정년에 고히치 아니하오나 녀을 엇지 경경이 울가보압. 죽금 우리가 백슈지년에 겨요 저을 어대 노코 천금만금가지 어로고 고이난대, 저을 엇지 여지 드러보내며 엇지 드러오게 하압게압. 후 한몫이 또 중난하기 우리 두사람만 가지고 하울 자식이 울가 보압. 조상의 동하온 거살 제몫이 시려노코 잇사오니 아모히 부자지의가 동하와도 조상의 동하온 것과 비교 못하압난 거시 예부터 성현이 질경하야 만세의 범을 드리오신 거시오니 더고나 한일만 생각하옵고 그리 하울가 보압. 늬이 만하야도 오지 못하옵게 하울 거술 엇지 저을 경이히 오게 하울가 보압. 게셔라도 잡고 말며 이런 도리울 개유하야 이르거 하얏. 나날 불이 점점 김퍼 가오나 별노 그리 심히 달난대 업시 먹고 자기 한가지오니 완친하오니 녀며 과히 타압.

이번에도 보내오신 참품은 자시 바다 도히 먹고 개위가 되오니 먹울적라과 내 분에 과하온 듯 하압. 며나리울 또 슈이다려오나 보오니 의오셔 이리 녀뿐이압. 범결이야 그러치 아니하온가 보압. 게셔 혼자 심너하오신난것 이리 더욱 녀며오며 다려온 후 집안 거시 제것시오니 차차하여 주난 거시 해롭지 아니 하오니 목전 급급한 것시나 하압고 가면서 하게 하얏. 제일 제사 차리난 범백을 급히 가리치게 하고 제사 동하온 거술 알게 하얏. 방사를 변통하나 보오니 그사이 엇지 하야삽관리 생조가 폐히 되어 어대 괴로 다려오압. 초초 덕사온 것 잇기 여리난 이만 그치압.

임인 삼월 초사일 상장」¹⁸⁾

第1次에 발표된 第8信인데 第2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秋史가 대정현에 유배중 부인에 게 쓴 上狀으로선 제6신이 된다.

용담의 첫째는 부인의 臥病과 舍仲弟 命禧의 전장을 걱정한 얘기다. 유배지에서 秋史가 夫人의 臥病을 걱정한 애뜻한 애정은 至淸 이상의 것이다. <여슈가 종시 쾌복치 못하오신가 보오니 게셔도 쇠경이라 한번 병드오시면 본디 적상적패하오신 근역에 오작하오시랴 이리 동동 녀며 못내 노홀 길 업삽…… 부대게 한몸으로만 아지 마오시고 이천니 외에 인난 마음을 생각하오셔

18) 註3) A (8-6), pp.332-333.

십분 신섭해야 가오시기 바라오며》라고 한 대목에서 秋史의 夫婦愛의 深度를 읽는다.

둘째는 養子 商懋가 秋史를 相面하려고 제주로 오는 것을 만류한 얘기다. 秋史에게 庶子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한 다음 해(1841)에 10寸尺의 泰喜의 아들 商懋를 입양시켰는데 그 양자가 양부인 추사에게 인사하러 대정현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만류하였다. 이는 그만큼 당시 遠惡地의 濟州島 왕래는 生死間의 위험한 일인 까닭에 도종의 萬一事를 심히 염려하여 이를 중지시킨 것이다.

세째 자신의 유배생활이 무고함과 보내준 饑飢를 받았다는 얘기다.

네째 며느리에게 제일 먼저 제사지내는 일을 가르치도록 당부하였다. 子婦를 들이는데 방이 없어서 새로 변통하여야 하는 궁핍하고 구차한 일편을 보여 주었는데 이는 추사가 죄인으로 몰린 후 壯洞의 月城尉宮이 安東金門에게 불수당하고 龍山 지경으로 옮긴데 起因한 것이라 하겠다.¹⁹⁾

例7) 「한외 회편 답서난 진즉 드러 가삼던가 하오며 이월 년후 서울서난 편지 보오니 나동 니집 주긴 일은 그 어인 일이며 어인 말이암. 통곡 통곡 참절경통하오니 아올러 말이 나지 아니하암. 강동의 경니를 생각하오면 살이 어이고 뼈가 사라지난 듯 엇더하다 하올 길이 업삼. 이런 참경 아니라도 이해에 오면 그 최패한 모양 오작지 아니하대 또 역니지척을 보고 엇지 견대여 나압난고 그 말 하나이 무어시 과하야 서 지경을 보오니 천니 인니가 엇지 이대도록 하온고 아모려도 알 길이 업삼. 죽근 아해난 삼십오년 인생이 참혹 참혹하오니 오히려 제 신세에난 호연할까 하오나 그러도 하불상한 인생이기 제 아비 만경에 이척이나 아니 식일가 하였더니 이때에 이 모양을 하야 뵈니 도물이 다 그리 만들고 돕난 듯 하야 어히 업시 말이 나지 아니하암. 그 사이 날이 발서 너머시니 강동의 범절이 엇더하암. 과히 상손치나 아니하온가 천니 밧긔서 동동한 녀녀 형용하야 엇지 덕삼. 쇼식도 속속히 드를 길이 업시 더욱 마암만 쓰이암. 발서 너름이 되엿사오니 거서난 요사이 하오시암. 신상이 조금 경하오시암. 이런 일 저런 일하야십사 지경치 못하오실 듯하오니 따르혀 신상이 엇지 편하게삼. 녀념히 노히 일길 업삼. 강동은 것해 저른 아해를 업지 아니하나 뉘가 그러도 위르하야 마음올 누켜가압난고. 생각하올사록 뼈가 어이난 듯하암. 무삼 약이나 머그며 석보부치나 하압난가 가지가지 생각뿐이암. 며나리는 그사이 다려와사올 듯하오니 집모양 조금 일워 의뢰가 패히 되압난가 이리 축슈하올 뿐이오며 범백을 보오니 과연 엇더하암. 도모지 인도하야 가르치기에 잇사오니 거서 혼자 슈슈러 가시난 일 오작 심력이 쓰이암. 도모지 문운이런이와 인력을 엇지 아니 드리올가보암. 산삭이 갔가왔다 하압더니 그 사이 엇지 하야삼난고 녀녀드리지 못하암, 나난 아직 별탈 업시 지내며 가압고 아래것들도 감최 알코 나온 후난 아직 무양들 하오나 용태가 쯤시 패히 전정치 아니하야 이리 동동하암. 마참 강경이 선편 잇삼기 두어자 안신만 이리 부치압.

임인 사월 초구일 상장²⁰⁾

第1次 발표된 제9신인데 第2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서 보면 추사가 대정현에 유배중 부인에

19) 註3) A, pp.333-335, 第8信 解説과 第10信 註①참조.

20) 註3)A (9-7), pp.333-334.

게 쓴 上狀으로선 第7信이다.

용담의 첫째는 秋史가 舍仲弟 命喜의 無男獨女가 35세에 夭死했다는 불운한 소식을 듣고 〈그 딸 하나이 무어시 과하여서 지경을 보오니 천니 인니가 엇지 이대도록 하온고 아모려도 알길이 업삼, 유근 아해난 삼십오년 인생이 참혹 참혹하오니……하 불상한 인생이기 제 아비 만경에 이. 척이나 아니 식일가 하였더니 이때에 이 모양을 하여 빅니 도물이 다 그리 만들고 돕난 듯 하여 어히 업시 말이 나지 아니하압)이라고 통곡 끝에 慘切驚痛한 나머지 通理의 悲運을 당한 동생의 신변을 진심으로 걱정한 얘기다.

둘째는 부인에게 약과 食補를 걱정하고 새며느리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데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庶子婦의 蔗月이 가까왔다 듣고 염기한 얘기다.

세째 자기 안부와 下人들의 안부를 얘기했다. 이 診箋을 근거로 한다면 유배지에서 직접 추사의 유배생활을 돕고 있는 下人 〈한〉 〈갑쇠〉 〈용배〉 〈강경〉 등이 나타난다. 이들 下人은 제주 대정현과 서울을 왕래하는 일을 주로 했겠지만 유배자의 隨行者의인 구실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例8〉 「경득 회편 어내때 드러갓삼, 그 후르난 선편이 거래가 막히여 소식을 오래 못듯자오니 어내듯 동지가 지경하온대 미령하오십 엇더하오시압.

그 중이 돌연 이각이 어렵사오니 이 동안 가감동정이 엇더하오시고 벌써 식달이 너머사오니 된기 범절이 오작 패하와 겨오시랴. 이리 외오서 동동 녀려 엇더타하올 겨오시랴. 길이 업사오며 침식 범백은 엇더하압. 이 동안은 무삼 약을 자시며 아조 위석하여 지내압. 간절한 심려 갈사록 지경치 못하게삼.

강동은 도슈 엇더하오며 한결을 당하여 숙증이 의구이 빈빈발작하올 듯하올 듯하오니 종종 녀려 곁하압고 아손들은 별고나 다시 업삼.

나난 아직 한 모양이오나 피풍으로 소양이 지금 다시 낫지 못하여 밤을 매양 새와 나오니 갖득 변변치 아니한 짐을 더고나 못자고 실로 어렵사오니 식음범백은 별로 못하지 아니하오니 아니 견대여 가입.

게서 병환으로 주쇼에 동등하여 소식에 설설 듯지 못하오니 더고나 도건을 약하야 못견대들 하압. 하숙들은 다 일양하오니 다행이압. 진사도 겨울 후난 육미도 엇디 갖보오니 그리저리하야 이 겨울을 뜨 무사이 넘기울 듯하압.

인편이 하 업삼기 주성애나 모삼 인편 이실지 더강 두이자 안부만 이리 부치오니 캐히 평복이 되신 소식 이리 날로 기다리압.

그 사이 경초선편으로 용담 무어시나 부쳐겨실 듯하오나 병환중 심려되여 겨실 일 이리 넘어오며 셔울서 들은 엇지를 지내고 미동치 등결을 당하여 오작 하오시랴. 이치일 길이 업삼.

비통은 일양 가독하와 겨요 니러 그리압.

임인 지월 십사일 상장.」

‘생진이 지경하오시니 아해들하고 한가지로 지내오실 일 요요히 셔 생각뿐이압.」²¹⁾

21) 註3) B <21-8>, pp.375-376.

第2次에 발표된 제21신인데 第1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추사가 유배지 대정현에서 부인에게 쓴 상장으로서 제8신이다.

이 諺簡은 壬寅 至月 14일에 쓴 것이나 이 諺簡을 쓰기 하루 전에 이미 夫人 禮安李氏는 대정현에 유배중인 남편의 放釋과 再會를 영영 못보고서 타계하였던 것이다. 곧 夫人 禮安李氏는 憲宗 8年(1842) 11月 乙巳朔 13日 丁巳에 他界한다.²²⁾ 그런데 이 언간은 부인이 죽은 것도 전혀 모르고 부인의 병환을 걱정한 형용키 어려운 정도로 心慮焦折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용담의 첫째는 부인의 병환을 심히 걱정하였고, 둘째는 舍仲弟 命喜의 宿症을 염려하였으며 셋째 추사 자신이 疝氣²³⁾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과 넷째 부인의 병환 소식 없어 중금하다는 것과 다섯째 부인의 생일에 아이들과 함께 지내도록 당부하였다.

사실상 이 諺簡에서 부인의 병세가 도리킬 수 없는 것으로 추사는 깨닫고 있었음을 암시 받는다.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이어 4일 후인 壬寅 至月 18일에도 諺簡을 띄우게 된다. 이 제 8신은 書簡文의 形式인 副文으로서의 〈追伸〉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例9) 「전편 편지 부치은 것이 인편에 한가지로 잘 뜻하오며 그 사이 새본관 오난 편에 녁뉴의 편지 보오니 이사이 년하야 병환을 폐지 못하오시고 일양 진퇴하시나 보오니 발서 여러 달을 미류하오며 근년 범백에 오락하와 거오시게삼. 우록정을 자시나보오니 그 약에나 폐히 동명이 겨시을 지원의서 심너조결하유기 형용 못하계삼. 나난 전편 모양이오며 그저 쇼양으로 못견디계삼. 잡치을 아 니 보내길 겁 업서 이리 보내오나 그 가난 모양 참축하오니 객중에 또 일층 심회를 편지 못하계삼. 급히 떠나 보내기 다른 사연 길게 못하삼

임인 지월 십팔일 상장²⁴⁾

第1次 발표된 제10신인데 第2次에 발표된 것과 정리해 보면 추사가 대정현 유배중 부인에게 쓴 上狀으로서 제9신이 된다.

용담은 부인의 병환을 걱정하고 자신의 疝氣²³⁾으로 고생됨을 얘기하였는데 부인의 병환을 걱정한 형용키 어려운 정도로 心慮焦折한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 이후 鯨寡存孤獨에 걸게 된다.

이 諺簡의 봉투에 「龍山」이라고 지명이 표시되어 있어 壯洞의 月城尉宮이 安東金門에 의해 물수당했다는 뒷받침이 된다.

요컨대 秋史의 濟州 流配 諺簡 9통은 그 문장이 순국어로 되어 있어 秋史가 珠玉같은 국어를 愛重하고 이는 바로 流配生活이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斷定할 수 있다.

아울러 그 諺簡文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夫人禮安李氏哀逝文」에 보면 그의 訃告가 丙寅(1843) 正月15일에 도착함.

23) 「阮堂先生全集」에 ‘……忽患疝氣之症 遍體鱗甲 不勝搔爬 夜不能交睫 並前雨時之眠 赤不得爲之 最是纏綿纏綿’이란 대목이 있다.

24) 註3) A <10-9>, p.335.

秋史의 諺簡에 나타난 文體의 특징

내용 서신구분	문장수	환유된 어미				기 초 어												
		종결어미 새	의문종결어미 거	시술종결어미 거	계서	나난	대해	이천리	천리	원외	찬품	쇼양	장육	장	큰병	숙증	선증 (상)	두루막
제 1 신	14	14	-	-	3	1	2	1	1	-	-	-	-	-	1	-	3	-
2	18	16	-	2	1	1	-	-	-	1	-	-	2	-	-	-	-	-
3	27	26	1	-	2	1	-	-	-	-	1	-	-	-	-	-	-	-
4	25	24	-	-	2	1	-	-	-	-	1	-	-	1	-	-	-	3
5	16	14	1	1	1	1	-	-	1	-	1	-	-	1	-	-	-	-
6	17	17	-	1	4	1	-	1	-	-	1	-	-	-	1	-	-	-
7	22	22	-	-	2	1	-	-	1	-	-	-	-	-	-	-	-	-
8	17	15	2	-	1	1	-	-	-	-	-	1	-	-	-	1	-	-
9	6	6	-	-	-	1	-	-	-	1	-	1	-	-	-	-	-	-
계	162	154	4	4	16	9	2	2	3	2	4	2	2	2	2	1	3	3

위 유배연간 9통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문장은 162개가 되는데 문장의 끝마무리는 경양보조어간을 마무리 형식으로 <하오시압> <하압> <일권삽> <그치압>등 종결어미의 축약형이 154개이나 되며 <잇가>등 의문종결어미가 4개, <이라> <하오이다>등 서술종결어미가 4개으로 나타나 夫婦間에 있어 夫人에게 上狀하는 한글體書狀은 종결어미가 생략되어 표기되었던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9통의 유배연간에서 여성인칭대명사로 <계서> <거서> <겨서> <거거서>등 16개나 處所代名詞로 표기된 것이 매우 흥미거리이나 이와같이 부부간의 대칭이 없었던 당시에 이렇게 활용하였다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며 注目할 만한 일이다. 그밖에 기초어로서 1) 나난(9), 2) 찬품(4), 3) 천리, 선증, 두루막(3), 4) 이천리, 대해, 원외, 장육, 장, 큰병, 쇼양(2), 5) 숙증(1) 등등으로 나타났는데 流配生活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찬품이 그 빈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유배지 제주도과 관계 깊은 것으로 천리, 이천리, 선증, 대해, 원외 등으로 나타났음을 쉬 이해하게 한다.

秋史 祖母 尹氏筆 諺簡 6통, 秋史 慈堂 俞氏筆 諺簡 3통, 秋史 生父 魯敬筆 諺簡 11통, 秋史 本人筆 21통, 秋史 季弟 相喜筆 諺簡 2통, 秋史 族孫 寬濟筆 諺簡 1통 도합 35통이 된다고 소개한 바가 있다. 이것은 秋史家 6代間의 親筆 筆蹟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된 바있다.²⁵⁾

秋史의 實學的인 학문, 예술은 결코 그 당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그 先代 曾祖代부터 바탕이 쌓여져서 生父 魯敬에 이르러 상당히 발전한 것을 秋史가 淸의 北學에 더욱 자극을 받아서 결실을 한 것이 그의 학문, 예술이 된 것이다. 실로 實學的인 가풍의 영향이 컸었다.

25) 「文學思想」(115), 1982, p.382.

그것이 一身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子弟와 隣近에 확산하고 마침내 대정현의 유배생활동안 通鑑, 論語, 孟子 등을 학습하는 것이 고작이던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四書 五經은 물론 서도와 天文, 산수학까지도 교육받게 되어 濟州島의 近代學問에 至大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²⁶⁾

IV

秋史가 유배지 대정현에서 부인에게 쓴 諺簡을 고찰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秋史가 유배지 대정현에서 쓴 인간의 발견은 秋史가 珠玉 같은 한글 文章을 썼다는 점에서 그의 의를 높이 사야하며 일상적 경험이 아니라 유배라는 특수한 경험에서 유배생활의 진상, 당시의 제주도의 습속 등을 반영하여 준 유배문학의 극치라 하겠고 국문학상 인간의 그 비중을 재평가 해야 한다.

② 秋史의 유배연간은 주옥같은 한글체 문장으로 썼다는 점에서 그가 조선조 후기의 실학자로서 주체적 실천가였다는 것과 그의 실사구시학은 바로 국적이 분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본다.

③ 조선조 후기의 閹閹政治인 세도정치에 의한 사회상과 그 희생으로 몰락된 추사가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④ 추사의 대정현에서의 유배생활의 진상을 사실적으로 그려주었고 당시의 대정현의 풍습 중 <김치>도 없고, <산채>도 먹지 않았고 <저자>도 없었다는 점에서 민속학상의 연구자료를 제공해 준다.

⑤ 추사의 유배연간은 단순한 개인의 용담과 감정뿐이 아니라 부인병세에 대한 걱정(9회), 舍仲弟 命禧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비롯한 혈육의 私情(8회), 유배인으로서 聖恩에 감사(1회), 유배생활에서의 선비의 자세(2회), 유배지에서 겪는 자신의 身窮(1회), 유배생활의 갖가지(9회) 등을 보여주고 그 설세함과 특수성을 함께하는 인간의 보편성을 고찰할 수 있다.

⑥ 추사의 유배연간 9통 중 결장 1통을 제외하고 8통 모두가 서명 <정회>대신에 <상장>이라고 하여 부부간의 왕래문에 전형은 보여 주었으며 서간 수신자에 대한 여성인칭대명사가 <계셔> <겨셔> 등 처소대명사로 표기되어 있어 부부간의 對稱이 없었던 당시에 이렇게 활용했다는 것은 매우 독창적이며 주목할 만하다.

⑦ 추사의 유배연간의 문체의 특징은 전체문장 162개중 151개의 종결어미의 축약형으로 되어 있어 인간문체의 특징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게 했다. 기초어를 조사해 본 결과 유배생활과 관계 있는 <饑品>이란 단어의 사용빈도가 제일 높고 유배지 제주도와 관계있는 <千里> <二千里>

26) 제주도교육위원회, 『濟州教育通史』, 1974, p.82참조.

〈大海〉〈遠外〉〈船中(上)〉 등등이 사용빈도가 다른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문장의 끝을 겸양보조어간을 마무리 형식으로 ‘하오시압’ ‘하압’ 등 종결어미 축약형으로 나타난 것은 夫婦間에 있어 夫人에게 上狀하는 謫簡은 연속적으로 書簡을 써야 하기에 축약되었던 것이며 그리고 겸양보조어간을 쓴 것은 일반문장에서 보다 書簡文章에서 夫婦間의 서로 존대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⑧ 추사가 유배지 대정현에서 부인 예안 이씨에게 쓴 언간은 현재까지 79년에 제1차로 발표된 5통, 82년 제2차로 발표된 4통, 도합 9통인데 이것이 年紀가 바로 잡아지지 못해 재구성하였다. 그중 연기가 결장, 또는 적어 있지 않은 것이 2통이나 제1신은 바로 연기가 없다 해도 언간내용 중 〈초일일에 대정배소에 오니〉란 대목이 바로 연기가 庚子年(1840) 10月1日을 암시함으로 가장 앞선것으로 단정되고 제3신은 연기가 결장나 辛丑年(1841)에 유배지에서 서울에 왕래한 하인 〈양재완〉이 제2신과 제4신의 경우 언간에 나타나 그 언간 문맥상으로 봐도 제3신으로 일단 정리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發信年紀대로 정리하면 제1차 발표된 6信은 (3)信으로 7信은 (5)信으로, 8信은 (6)信으로, 9信은 (7)信으로, 10信은 (9)信으로, 第2次 발표된 18信은 (1)信, 19信은 (2)信으로, 20信은 (4)信으로, 21信은 (8)信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⑨ 원숙한 성격은 여러 견해와 접촉면을 구비하고 있고 다른 관계 속에 나타나게 된다고 할 때 추사는 당시 출사한 공적생활, 경주김문의 종손으로서 집안일을 처리하고 우애깊은 사적생활, 유배 생활속에서도 분수껏 생활하고 聖恩에 감사하려는 士大夫의 자세에서 그의 圓熟한 성격을 볼 수 있다. 秋史의 流配謫簡은 日常的이고 平面的인 형편에서 보다 流配란 특수한 사정 아래서 다시는 살아서 歸郷할 수 없는 절망과 단절 의식으로 인해 方外人으로서 무엇인가 쓰지 않고는 못결될 절실한 소망 때문에 書簡을 통해 표백했으나 다른 서간보다 人生의 진실이 표백되어 있다.

⑩ 秋史의 謫簡에 나타난 국어현상은 150년 전후의 국어로서 고어에서 근대어로 넘어오는 시대의 언어로 생성한 국어의 寶庫라 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Choosa's Letters during the Exile in Jeju Island

Soon-pil Yang

In 1842, Choosa Kim, Jung-Hee was banished to Dae Jung Hyun in Jeju-Do by the reproposal of prisoning Yun, Sang Do, where he lived for nine years.

Choosa was so pedantic that he was highly estimated in many ways. He was well known to us as a calligraphist developing Choosa's style, an epigraphist, and a member of the practical Learning School 'Silhak' at the end of Chosun-Dynasty, but his Literary position is not settled yet.

This paper mainly examines choosa's letters during his life of exile in Jeju-Do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His letters during his exile are divided into two parts, 9 letters written in Korean and some letters in Chinese characters. The former were found recently and they showed us that he wrote a beautiful composition in Korean. Especially, his idea of practical Learning should be highly valued in respect of being based on national identity.

2. His letters written in Korean represent the real aspects of exilian literature reflecting the customs of Jeju-Do at that time.

3. His Korean letters express not only private business and individual feelings, but also conjugal affection, blood-relationship and social conflicts. His exquisite style makes Choosa's letters greater literary works, representing universal and unique human qualities.

4. Nine Korean letters are composed of 162 sentences in which there appeared 154 abbreviations of ending, 4 interrogative endings, 4 predicative endings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his characteristics of sentences, and it is worthy of note that female personal pronoun like 'Kesho' and 'Kyeosho' revealed their appearances and second person pronoun which hadn't been in those days was created. Choosa's Korean

letters included his own expression nine times worry about his wife's reckness, 8 times care for brother's health, 2 times gratitude for King's goodness, 3 times his own health, 8 time exilian liee. All these things showed us the universality of man with delicacy and peculiarity.

5. The language used in his letters is a practical one used about 150 years ago. His letters are precious treasures in Korean literature in that he uses language as a transitional one moving from ancient language to modern Language.